

지역 소식통

정읍,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정읍시는 아동·청소년들의 식생활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해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바우처 카드는 월 1만5000원 한도로 지급된다. 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정읍 내의 농협 하나마트, 편의점 등 105개소에서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우유류,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5세부터 19세(2005.1.1.~2018.12.31. 출생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다. 신청은 증빙 서류를 지참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19일부터, 다자녀 가정은 3월 4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로컬푸드 성과보고회 및 2024비전공유대회

부안군은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참여(예정)농가 2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2023년 부안 로컬푸드 성과보고회 및 2024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 1일차(15일)는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2일차(16일)는 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할 자격이 주어진다.

행사는 지난해 부안 로컬푸드 실적 보고, 2024년 부안형 푸드플랜 주요 현안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자주민증제 실시 및 농가별 출하계획서 작성, 농산물 포장 및 진열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또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이커머스 활용 방안 등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시동

정읍시, 총사업비 1635억 규모 13개 사업 추가 발굴

정읍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추가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학수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사업담당 실과소

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 △인구·환경변화 대응사업 △첨단과학 신성장동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회의를 거쳤다. 정부의 건축·건설재정 유지기조에서도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사업 발굴을 목표로 머리를



정읍시는 지난 13일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추가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맞댄 결과, 총사업비 1635억 규모의 13개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은 △인물 중심의 특화된 미술관 건립(400억원) △치유와 힐링, 웰니스관광 거점시설 조성(200억원) △반려동물의약품 R&D 고도화(200억원) △감염병 대비 RT-ADME 평가 플랫폼 구축(200억원) △국경지구 배수개선사업(155억원) △환경친화적 전적 종합 정비(120억원) △수소총점소 구축사업(120억원) △입안처리분구 2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88억원) 등이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예산반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국·도비 확보는 정읍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설득력 있고 빈틈없는 논리를 개발하고, 관계부처 방문 설명과 공감대 형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발굴된 사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본격 추진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부안군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 지원을 위해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지원되며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및 하나마트, GS편의점 등에서 신선식품(국내산 과일, 채소, 원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한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가구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바우처 금액을 지원받을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별 지원금은 신청 당일 다음날부터 오는 8월까지 매일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 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일 1일 자정으로 재충전돼 당일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00원 미만 미사용 금액은 이월, 2,000원 이상의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군은 교통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바우처 카드 직접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를 매일(1회)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43회 고창오거리당산제, 23일 중앙당산서 개최

갑진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창군 곳곳에서 주민의 건강과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풍어제가 열린다. 고창군 오거리당산제보존회(회장 고복환)는 정월대보름 전이인 오는 23일 저녁 읍내 중앙당산 일대에서 마을 조상신과 수호신에게 주민의 안녕과 무병,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제43회 고창오거리당산제'를 연다.

고창오거리당산제는 민족 명절인 설

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고창읍 동서남북 네거리를 수호하는 당산의 당제를 정월초사흘(2월12일)과 초팔일(2월17일)에 지낸다. 당산제는 정월대보름 전야 고창읍 중앙에 위치한 중앙당산에 300여명의 군민이 모여 고을의 연운을 기원하며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 과정을 통해 고창사람의 정체성을 전승해가는 지역 전통문화축제다.

고복환 회장은 "군민의 대동단결을

위한 대동놀이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해 소원달기, 제기차기, 무료 떡나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창오거리당산은 2006년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신 삶에 대한 만족도 전북 2위

정읍시,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 6.77점, 어제의 행복 6.96점

정읍시민들이 느끼는 자신의 삶 만족도가 도내 14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3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 중 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6.93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매겼다.

이는 도내 평균인 6.55점보다 높은 것으로, 진안군(7.24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중에서도 정신적인 측면의 삶의 질 점수는 69.5점으로 도내 최고 순위로 집계됐다.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 중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6.77점으로 도내 평균 6.40점보다 높았고, '어제의 행복' 항목 또한 6.96점으로 도내 평균인 6.53점을 크게 상회했다.

더불어 '향후 10년 이후 시·군 거주 의사'를 묻는 항목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시민은 85.3%로 도내 3위를 차지하면서 살기 좋은 정읍의 면모를 드러

냈다.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시정 슬로건으로 정한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과 지자체 기금 75억원을 확보해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55억원을 들여, 정읍아산병원의 강당과 병동 일부를 리모델링해 어린이전문병동을 갖춘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설립해 분만부터 산후조리, 육아까지 이어지는 단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이 정읍에 느끼는 소속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마을주치의, 건강지킴이 역할 특출

고창군의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관절염 등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초고령화시대 보건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마을주치의사업 관련, 지난해 604개 전 경로당과 섬마을을 찾아가며 주민 1만7,183명에게 기초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을 찾아가는 의사는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약사업이다.

심 군수는 "몸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집 앞 경로당에서 간단한 진료만으로도 몇 가지 의심 징후들이 발견되어 예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치의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고창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38.3%(전체인구 5만

1701명 중 1만9839명)에 달한다. 하지만 총 58개소 병·의원중 고창읍에 40개소(68%)가 편중돼 있어 농촌마을에서 병원 한 번 가기 위해선 큰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12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조사(의사, 한의사)를 마을별 담당 주치의로 지정했다. 보건업무 담당자 2~3명이 팀을 꾸려 총 13팀(67명)이 의료취약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는다.

마을주치의는 △기초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건강상담 △치매 조기검진 △노년기 우울증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영역(영양, 금연, 절주, 구강, 신체활동, 심뇌혈관 예방관리) △국가암검진 △감염병 예방관리 △계절별 폭염·한파 건강관리 안내 등으로 건강지킴이 효과노트를 특목히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